

## 2014년 무용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선정 심사평

### <무용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이번 무용 창작산실 시범 공연 지원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대극장용과 소극장용으로 구분하여 모집한 것이고, 이에 다양한 장르와 연령대의 안무가들이 대거 지원 신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기준과 내용도 여러 사안별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엄중을 기했다.

대극장부문에 지원한 심의대상의 경우, 지원 단체의 예술적 역량과 작품의 사전 계획대로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평이한 주제와 방법론보다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면서 무용예술로서 구현되었을 때 예술적 가치와 재공연의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높은 작품, 그리고 한국적 독창성과 미학을 추구하는 작업들과 미래지향적 주제와 소재들을 적극 사용하는 안무가들의 의욕과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을 높게 평가하였다. 특별히 지나치게 스펙타클한 무대장치와 무대미술을 사용하는 경우 향후 재공연시 많은 한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인터뷰 심의시 집중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소극장부문은 상대적으로 젊은 안무가들이 대거 심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간 활동해왔던 내용과 향후 지속적 활동 가능성이 높은 단체와 개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이전 작업과의 연관성, 공연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안무가로서의 역량과 예술적 가치 부여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엄밀히 살펴보았다.

많은 안무가들의 최근의 경향들과 주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모색들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예로 다양한 레지던시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작업들이 흥미로웠고 장소특정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한다든지, 움직임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도드라지는 작업, 연극이나 영상 등 다른 장르와의 적극적인 협력 모색 등이 젊은 안무가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어 흥미롭고 고무적이었다. 이전에 활동했던 선배들과 확연히 다른 족적을 남기면서 새로운 무용예술의 전형을 실험하고 모색해 나가는 젊은 안무가들의 의욕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예술적 모험을 통해 새로운 무용공연의 형태 제시 역시 소극장

대상 사업의 커다란 특이점이었다.

심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는데, 심의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많은 작품들이 나름 새롭고도 참신한 방법론과 의욕에 찬 미학적 제시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원신청한 안무가들 모두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응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2014 무용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심의위원 일동